

## (3)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위한 평가 리포트

### 기사 정보

이 기사는 2025년 2월 4일 한국일보에서 최동순 기자님이 작성한 "살인 전과자도 있는 외국인보호소, '계엄 정국'에 일괄 석방 우려"라는 제목의 뉴스예요. 외국인보호소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을 계속 보호할 수 있는 법이 곧 사라지는데,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늦어져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보호소에 살인 같은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어서 이들이 풀려날까 봐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뉴스 비판적으로 읽기

우리가 뉴스를 읽을 때는 그냥 믿기보다는 '이게 정말 사실일까?', '기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기사를 썼을까?' 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뉴스가 우리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주는지 판단할 수 있답니다.

### 이 기사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들

#### 문제점 1: 너무 무섭게 표현했어요!

기사 제목이 "살인 전과자도 있는 외국인보호소, '계엄 정국'에 일괄 석방 우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 제목은 독자들이 너무 놀라거나 무서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보호소에 있는 모든 외국인이 위험한 사람이고, 곧 모두 풀려나서 큰일이 날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하지만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보호소에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여권 분실이나 교통비 문제 등으로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살인 전과자는 극히 일부인데, 제목에서는 마치 그들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왜 문제가 되나요?:** 뉴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쓰면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게 되고, 외국인에 대해 나쁜 편견을 갖게 될 수 있어요. 또, 불필요하게 사회적인 불안감을 키울 수도 있어요. 기자님은 사실과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쓰지 않아야 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기사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특정 단어(예: '살인', '우려', '계엄')를 강조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기사 본문에서 그 제목이 말하는 내용이 정말로 전체를 대표하는지, 아니면 아주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문제점 2: 한쪽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 같아요.

기사는 주로 법무부의 걱정이나 국회가 법을 빨리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외국인보호소 문제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보호소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사에서도 시민단체가 "반인권적인 사실상의 구금"이라고 비판했다고 짧게 언급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어요. 마치 한쪽의 주장(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문제가 되나요?:** 뉴스는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전달해야 해요. 그래야 독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쪽 이야기만 들려주면 독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편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기사에서 어떤 주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한쪽 이야기만 너무 많이 나오거나, 다른 쪽 이야기는 아주 짧게만 나온다면, 그 기사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 문제점 3: 개인 정보를 너무 자세히 알려줬어요.

기사에서 살인 전과가 있는 '장모씨'나 성폭행 혐의가 있는 'A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언제 감옥에 갔다가 나왔는지 등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뉴스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해요. 특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들의 개인 정보를 너무 자세히 공개하면, 그 사람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또한, 이미 벌을 받은 사람을 계속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찍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너무 자세한 범죄 내용은 피해자에게 다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어요.

**왜 문제가 되나요?:** 기자님은 뉴스를 쓸 때 다른 사람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특히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할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단정해서 말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기사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 사는 곳 등 개인 정보가 너무 자세히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범죄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지 생각해보세요.

## 비판적으로 뉴스 읽는 방법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목은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될 수 있어요. 꼭 기사 전체를 읽어보고 내용이 제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누가 이야기하는지 확인하세요:** 기사에 나오는 정보가 누구의 말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전문가인지, 관계자인지 등) 생각해보세요. 익명으로 처리된 정보는 더 조심해서 봐야 해요.

**다른 기사와 비교해보세요:**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보도하는지 찾아보세요. 여러 기사를 비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세요:** 기자님의 생각이나 추측이 사실처럼 쓰여 있는지 아닌지 잘 살펴보세요. '이럴 수 있다', '~라고 우려된다' 같은 표현은 기자님의 의견이나 추측일 수 있어요.

**사진이나 그림도 잘 보세요:** 사진이나 그림도 기사의 내용을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사진이 기사의 내용과 정말 잘 맞는 지, 너무 자극적이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세요.

## 실습 활동 제안

**역할극:** 이 기사에 나오는 법무부 관계자, 시민단체 활동가,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역할극을 해보세요.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생각해보면 기사의 문제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목 바꿔보기:** 이 기사의 제목을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꿔보는 활동을 해보세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좋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다른 뉴스 찾아보기:** 외국인보호소나 이민자 문제에 대해 다른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이 기사와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보세요.

## 추가 학습 자료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헌장: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9209>

신문윤리위원회: <https://www.kpec.or.kr/>

## 결론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아주 중요해요. 이 기사처럼 때로는 뉴스가 사실을 과장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도할 수도 있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뉴스를 읽을 때 더 똑똑하고 비판적인 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